

태국의 왕위계승 연구:

쟁점과 전망*

김 흥 구**

I. 연구배경

푸미폰 국왕(Bhumibol Adulyadej, 1927년생)이 고령에 병약해지자 차기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푸미폰 국왕의 후계자는 분명 와치라롱껀 왕세자(Vajiralongkorn, 1952년생)이다. 와치라롱껀은 20세가 되던 1972년 공식적으로 왕세자(สมเด็จพระบรมโอรสาธิราช เจ้าฟ้ามหาวชิราลงกรณ สยามมกุฎราชกุมาร) 책봉식을 갖고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 후계자로 임명되었지만 후계지위의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왕세자가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오래 전부터 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쥘라롱껀대왕의 증손자이며, 푸미폰 국왕과는 사촌지간(푸미폰 국왕의 배 다른 작은 아버지의 손자)인 방콕 시장 쉰쿰판(Sukhumphan Boriphat)은 2009년 4월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Spiegel)지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국왕은 공식적으로 그의 후계자를 뽑지 않았다” 라고 의미 심장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Marshall 2012/10/24). 세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줄고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hongkoo@bufs.ac.kr

해서 2011년 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서는 와치라롱껀 왕세자는 분명 한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Marshall 2014: 109).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직접 당사자인 왕실에서 한번쯤 공식적 의견을 발표할 만도 하지만 그런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

후계문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정치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색깔의 정치세력은 레드셔츠와 옐로셔츠이다. 전자는 2006년 쿠데타로 물러난 탁싌(Thaksin Shinawatra, 1949년생)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인데 이들은, 도시빈민과 동북부·북부 농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후자는 왕실·군부·관계·재계·중산층을 아우르는 보수동맹 네트워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세력은 2006년 쿠데타 후 한치의 타협 없이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탁싌은 이 과정에서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왕실의 절대 비토세력으로 낙인 찍혀있다.

앞으로 두 세력이 차기 왕위계승 문제를 놓고 대립될 경우 태국에는 지금보다 더 큰 정치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왕위계승 1순위인 와치라롱껀 왕세자는 탁싌과 친밀한 관계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탁싌은 과거에 왕세자의 재정적 후견인 역할을 한 적도 있다. 그러니 반 탁싌 세력들은 탁싌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왕세자가 탐탁할 리 없다. 씨린턴 공주(Sirindhorn, 1955년생)는 왕세자보다 국민적 신망이 두텁고 그녀 아버지의 좋은 점을 가장 닮은 딸로 유명하며 반 탁싌 세력들이 특히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정치적 이유는 후계문제에 관한 관심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틀

태국은 법률로 국왕 일가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112조)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2014년 쿠데타 후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래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처럼 태국에서 왕실관련 뉴스에 대해서는 그 반응이 민감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관련 연구 또한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관련 연구자의 경우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아 입국이 불허된 상태이다.

태국과 같이 왕실모독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에서 왕실 관련한 일들을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를 빗대어 한 태국학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도 있다. “(왕실 관련해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어떤 누구도 알 수는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를 믿지 말아라(Finch 2015: 108).” 언론에 왕실모독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되는 경우도 단순사실만을 보도하지 그 내용은 보도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는 태국 입헌군주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태국 국내 연구로, 주로 푸미폰 국왕과 경제·사회개발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 외 연구가 극히 제한적인 이유는 왕실모독죄 조항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국외 연구로,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 관련된 것들이다. 다수의 논의들은 국왕은 정치 불개입이라는 입헌군주제의 대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왕의 정치개입을 주장하는 논의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왕실 후계구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입헌군주임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를 갖고 실제로 정치에 개입했던 푸미폰 국왕 사후 후계자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이다. 후계구도에

대한 다양한 언급들은 차기 후계자도 푸미폰 국왕과 같이 카리스마를 갖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부터 푸미폰 국왕과 같은 절대자가 사라진 후에도 입헌군주제 자체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Handley 2006; Hewison 1997; Kobkua 2002; Kershaw 2001; McCargo 2005; Marshall 2014).

국왕의 정치개입과 왕실후계구도 관련한 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다. 그것이 기사나, 칼럼 형식이긴 하나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연구가 어쩔 수 없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널리스트의 관심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2006년 쿠데타 후 관련된 주요 외신들은 AP,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The Economist, The Japan times, The Straits times, The Times, The Telegraph, Asiasentinel, The Guardian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인터넷 신문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Puangthong 2015/10/19). 실제로 왕실관련 연구는 1차 정보제공자와의 접촉이 어려워 그 연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자와의 접촉이 용이한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그들의 정보제공은 우리들에게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키는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후계구도에 관한 언급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푸미폰 국왕 이후 현재와 같은 태국 고유의 입헌군주제의 성격은 변화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왕위 1순위 후계자는 와치라롱껀 왕세자이지만 두 번째 공주인 씨린턴 공주의 왕위 계승 가능성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개 세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왕세자 개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한 황태자는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왕세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왕위계승의 부적격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승의 가능성까지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Kobkua 2004; Marshall 2014: 135-144; Handley 2006: 394-

406).

둘째는 1924년 왕위계승법과 내용을 달리하는 1974년 헌법 때문이다. 1924년 왕위계승법에서는 남성 후계자만을 인정하였지만 1974년 헌법은 여성도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Kobkua 2002: 57-61; Kobkua 2004: 201-209; Kershaw 2001: 152-153).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왕위계승법이 남성 후계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74년 헌법에 따라 여성도 후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여성을 후계자로 임명하게 될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한 충분치 않은 설명으로 민감한 후계문제의 해석여지를 제한시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는 왕세자는 탁신편과 가깝다는 전제하에 왕세자=친 탁신편 세력, 씨린턴 공주=반 탁신편 세력이라는 정치구도 속에서, 씨린턴 공주의 계승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기존 정치구도는 2014년 쿠데타 후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 탁신편 세력의 선봉에서 서 있는 군부가 왕세자를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Marshall 2014; Handley 2006; Streckfuss 2013).

후계구도를 정치적 상황과 관련 지어 분석한 중요한 연구는 두 편이 있다. 관련 여타 연구들은 정보 접근의 제한성 때문에 여기 담긴 내용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핸들리가 2006년 출판한 *The King Never Smiles: A Biography of Thailand's Bhumibol Adulyadej*이 그 한 편이다.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 연구는 국왕의 정치개입이라는 태국정치의 일종의 터부 영역을 광범위한 자료로 분석했다. 이 책에는 왕실가족의 사생활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 와치라롱건 왕세자를 제 멋대로이고, 폭력적이며, 수상쩍은 금전거래와 자동차 스피드 광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해 놓았다(Handley 2006).

차기 왕위계승을 정치상황과 관련 지어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2014년 발표된 마샬의 *A Kingdom in Crisis: Thailand's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다. 그는 2006년 쿠데타 이후 전개되고 있는 만성적 정치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를 차기 왕권 투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기본구도는 왕세자=친 탁썬, 씨린턴 공주=반 탁썬을 전제하고 있다(Marshall 2014).

핸들리와 마샬은 모두 태국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저널리스트 출신이다. 그들은 현재 태국에 입국이 불허된 상태이고 두 권의 책들은 태국 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상태이다.

이 글의 목적은 태국 왕위 계승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왕권의 향방을 전망해보는 것이다. 위 왕실 후계구도의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들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들이 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들을 각각 법적, 개인적, 정치적 쟁점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것이다. 법적 쟁점은 1924년 왕위계승법, 1974년 헌법, 2007년 헌법, 2016년 헌법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승계순위를 파악한다. 개인적 쟁점은 왕세자의 개인적 자질이 왕위계승에 적합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정치적 쟁점에서는 왕세자=친 탁썬 세력, 씨린턴 공주=반 탁썬 세력이라는 정치구도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은 후계구도와 정치적 전망을 잠정적으로 예측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연구라는 점, 일차 정보 제공자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한된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왕위계승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연구의 현실적 가치 측면에서 선도적 연구로서 한계 못지않은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론적 시각에서 다른 입헌군주제국가들과 태국사례를 비교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태국 입헌군주제의 특수성

을 고려한다면 연구결과는 보편적 입헌군주제하에서의 왕위계승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Ⅲ. 법적 쟁점

이 장에서는 왕위계승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살펴본다.

1. 왕위계승의 역사적 과정

태국에서 왕위계승의 제도화 역사는 길지 않다. 현재 왕위계승에 관한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은 1924년 왕위계승법이다. 와치라롱껀 왕세자도 이 법에 따라 후계자로 임명되었다. 그 이전에는 확실하게 제도화된 계승규칙이 없어서 왕위계승은 항상 정치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1456년 아웃타야 왕조(Ayutthaya, 1351-1767)의 프라이룩까낫왕(Borommatrailokkanat, 1431-1488)은 왕실법을 만들어 왕위계승에 관한 규칙도 처음으로 정했다. 하지만 왕실법에서는 왕의 아들들의 서열을 정했을 뿐, 후계자를 직접 정해 둔 것은 아니었다(ณัฐ ไชยโยธิน 2003: 23). 이 법에서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부왕제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왕은 부왕인 우빠랏(Uparaja)을 임명해 자신의 통치와 승계를 순조롭게 돕도록 했다. 아웃타야 왕조 때 부왕이 된 자는 왕자, 왕의 동생, 조카 등이었다. 모두 33명의 왕과 12명의 부왕이 있었는데 부왕이 된 경우는 아들 8명, 동생 3명, 조카 1명이며, 부왕이 왕이 된 경우는 9명이었다. 현재 랏따나꼬쥘 왕조(Rattanakosin, 1782-현재)에서는 라마 1세의 부왕을 지낸 라마 2세(Rama 2, 1809-1824)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왕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부왕제 역시 확실한

왕위계승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송인서 1994: 37).

이 같은 계승방식의 불확실성 속에서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의 경우가 많았다. 아유타야 왕조때 왕위계승의 3분의 1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유타야 왕국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왕위 계승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언제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왕족과 귀족세력들이었다. 왕과 그들의 의견은 달랐다. 왕은 일반적으로 계승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원했으나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호적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 갖기를 원했다(Marshall 2014: 114).

현 왕조에서도 이런 상황은 황태자제도를 확립한 라마 5세때까지 이어졌다. 라마1세 장남이 부왕에 임명되었다가 라마 2세가 되어 승계했다. 라마 3세는 라마 2세와 후궁 사이에서 출생해 왕위에 올랐다. 후일 라마4세가 되는 몽꿋(Mongkut)왕자가 적자로서는 장남이었지만 만 20세가 안된 나이로 사원에서 승려생활 시작한지 13일밖에 안되었고 라마 3세는 37세로 모든 국정을 처리하고 있었다. 주요 왕족과 귀족들은 몽꿋의 연소함, 국정 무경험으로 그를 택했다간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유능한 라마 3세를 선택했다. 당시는 영국과 버마간 전쟁이 한창이었다(송인서 1994: 41).

라마 3세는 그의 아들 두 명 중 한 명이 계승하기를 바랐으나 일부 왕족과 귀족의 반발을 두려워해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 당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은 프라크랑(Phra Khlang, 재무겸 외무장관)인 딛 분낙(Dit Bunnak, 1788-1855)이다. 그는 후일 분낙가의 세도정치 기초를 닦은 사람인 데 세도정치를 위해서는 라마 3세의 왕자가 아닌 사람을 선택해야 했으니 그가 승려였던 라마 4세이다(Terwiel 2011: 143-144). 라마4세는 죽음에 임박해서도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총리 겸 국방장관인 추영 분낙(Chuang Bunnag 또는 Sri Suriyawong)에게 전권을 넘겨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는 라마 4세의 장자인 라

마 5세를 지지하면서 섭정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누렸다(Terwiel 2011: 179-180).

태국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이끈 라마 5세 쾄라롱껀 왕(Chulalongkorn, 1868-1910)은 부왕제를 폐지하고 유럽식 왕세자제도를 창설했다. 그는 부왕과의 갈등으로 집권초기 권력기반이 약화되었으나 부왕이 사망한 후 즉시 부왕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유럽식 왕세자제도를 마련해 왕의 후계자를 미리 확정시켰다. “왕이 부왕을 임명하는 것은 전혀 관습적인 것이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군주의 대권을 분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경제적이고 쓸모 없는 직책이다”라고 부왕제를 혹평했다(송인서 1994: 47 재인용). 1886년 마하 와치룬나히트(Wachirunnahit)이 최초의 왕세자로 임명되었으나 불행히도 8년후 사망하자 와치라웃(Vajiravudh)이 왕세자에 오르니 그가 라마 6세(1910-1925)이다(송인서 1994: 48).

2. 1924년 왕위계승법과 1974년 이후 헌법들

1) 1924년 왕위계승법

라마 5세에 의해서 실제로 최초의 왕세자로 임명된 와치라웃은 1924년 왕위계승법을 제정했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กฎหมายที่ตราว่าด้วยการ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 พระ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๖๗, 1924년 왕위계승법).

왕은 왕실 남성 중 한 명을 새 왕으로 임명하는 절대권을 갖는다(5조). 왕은 그의 후계자를 그 직에서 해임할 절대권도 갖는다. 그렇게 되면 그의 전체 혈통은 왕권에서 배제된다(7조). 8조와 9조는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는 경우 새 왕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9조는 승계순서에 관해 명확히 설명해 두고 있다. 그 순서는 모두 13개 단계로 나뉘는 데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왕자)→이 왕자와 그 배우자의 첫째 아들→그 다음 아들들 순

이며,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이 유고이고 아들도 없는 경우에는 둘째 아들대로 왕위가 계승된다.

10조는 왕위 계승 부적격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왕위에 오르는 자는 누구나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 다중이 혐오하는 자는 왕과 국민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승계를 포기해야 한다. 11조는 정신이상,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불교의 옹호자로서 봉사할 수 없을 때, 외국여자(원래 태국국적이 아닌)와 결혼한 경우는 승계라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3조는 공주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시기상조로 간주해 절대로 금지시키고 있다.

1924년 왕위계승법의 주요 내용은 왕은 후계자를 정하는 데 절대 권을 갖는다는 것, 남성 후계자만을 인정하며 여성 후계자는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 승계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일 것이다.

1924년 왕위계승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로 어떻게 계승되었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마5세 쫄라롱껌왕은 4명의 왕비와 32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1910-20년대 사이에 왕실혈통을 갖는 3명의 왕비(正宮)와 사이에 7명의 아들이 생존해 있었다. 첫째 왕비는 5명의 왕자(이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음), 둘째 왕비는 1명의 왕자(2명의 아들이 있었음), 셋째 왕비는 1명의 왕자(2명의 아들이 있었음)를 가졌다¹⁾.

왕위계승법을 만든 이는 첫째 부인의 장남인 와치라웃이었다. 와치라웃이 죽고 그의 막내 동생인 라마 7세 빠라차티뵉(Prajadhipok, 1925-1935)이 계승했다. 첫째 왕비는 모두 5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와치라웃 재위기간 중 둘째, 셋째, 넷째 왕자는 죽었다. 와치라웃은 딸이 1명 있었지만 왕위계승법에 따라 승계라인에서 배제되었다. 둘

1) 이 내용은 <https://www.wikipedia.org>(검색일: 2015. 11. 30)에서 찾아서 정리했음.

째 왕자는 러시아 여성과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으나 그 아들은 어머니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승계라인에서 배제되었다. 넷째 왕자에게도 아들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가 평민이었기 때문에 계승자격이 없어 뿌라차티뵉이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뿌라차티뵉은 자신이 한 명도 없어서 결국 쥘라롱껀왕의 둘째 왕비의 장손(Mahidol Adulyadej)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야 했지만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의 첫째 아들인 아난타 마히돈(Anada Mahidol, 1935-1946)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아난타 마히돈이 미혼으로 후사가 없이 죽자, 그의 동생인 푸미폰 아둔야뎃이 지금의 라마 9세가 되었다. 라마 5세때 왕세자 임명과 6세 때인 1924년 왕위계승법이 제정된 후 비교적 제도화된 법 속에서 승계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역사는 지극히 짧다고 볼 수 있다²⁾.

2) 1974년 헌법과 2007년 헌법

1932년 입헌혁명 후에도 왕위계승에 관해서는 1924년 왕위계승법을 따르도록 했으나 1974년 헌법에서 공주를 후계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헌법 25조는 “왕위 계승은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국회는 왕자가 없으면 공주가 계승하도록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1924년 왕위계승법의 개정은 헌법개정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주가 계승하도록 할 경우에는 왕위계승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๑๗, 1974년 헌법).

2014년 5월 쿠데타로 폐기된 가장 최근의 2007년 헌법에는 국왕이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 후계자를 임명할 수 있고(22조), 왕위계승법에 따르지 않고 후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추밀원에서 후

2) 이 내용은 <https://www.wikipedia.org>(검색일: 2015. 12. 06), Terwiel(225: 247-248, 263-264)에서 찾아서 정리했음.

계자의 명단(여성도 가능)을 작성해 내각에 제출한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하원 임기가 끝났거나 해산되었을 때는 상원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규정돼 있다(23조)(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๐, 2007년 헌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밀원(Privy Council)의 역할이다. 추밀원은 라마 5세 때인 1874년 국왕자문기구의 일종으로 만들어졌다. 1932년 입헌혁명 후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했지만 1949년 헌법에 따라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추밀원이 탄생했다. 2015년 현재 추밀원은 18명(의장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주로 전직 군, 법관, 관료 출신들이다. 추밀원은 국왕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국왕은 자신의 의중을 나타내곤 한다.

2007년 헌법에 따르면 추밀원은 국왕 유고 시에 섭정의 명단을 국회에 보내 승인을 받거나(19조), 섭정이 유고상황에서는 추밀원 의장이 직접 임시로 섭정을 할 수도 있다(20조). 1924년 왕위계승법 개정은 국왕의 절대적 권한이며, 추밀원에서는 국왕의 뜻에 따라 왕위계승법을 개정해 국왕이 검토하게 한 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부서하게 된다(22조)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๐, 2007년 헌법).

위의 후계자 임명과 추밀원 역할에 관해서는 2016년 8월 7일 국민 투표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왕실 가족과 왕위계승자격

현재의 왕실 가족 상황을 살펴보면 1924년 왕위계승법과 1974년 헌법, 2007년 헌법 등에 따른 승계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 1> 왕실 가계도 참조).

푸미폰 국왕은 씨리킷 왕비(Queen Sirikit, 1932년생)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다. 그 중 장남인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제1 순위 후계

자이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다른 후손들도 있다.

첫째 딸 우본랏(Ubonrat Ratchakanya, 1951년생)은 미국인 피터 쟈슨(Peter Jensen) 과 결혼 해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죽었다. 그녀는 외국인과 결혼한 전력으로 아직까지 공주의 타이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두 명의 딸들은 공주 타이틀이 없다. 씨린턴(Sirindhorn, 1955년 생)은 미혼이며, 1977년에 왕세자에 비견할 수 있는 왕실 타이틀을 수여 받고 당시로서는 왕세자 다음으로 승계가 가능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셋째딸 쭈라편 (Chulabhorn Walailak, 1957년생)은 두 명의 딸을 두었으며 그들은 공주 타이틀을 갖고 있다.

왕세자는 공식적으로 3번 결혼 해 3명의 부인으로부터 5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얻었다. 첫번째 부인(솜싸왈리, Soamsawali, 1957년 생)과의 사이에 딸 한 명(팟차라끼띠야파, Bajrakitiyabha, 1978년생)을 두었는데 그 딸은 순수 왕실 혈통으로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둘째 부인(쑤짜린니 위왓차라잉 Sujarinee Vivacharawongse, 또는 유와티다 폰쁘리쑤 Yuvadhida Polprasert, 1962년생)과의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다. 이혼 후 이들 모두는 외국으로 추방되었으나 딸(씨리완와리나리랏, Siriwanwari Narirat, 1987년생)만은 2005년 왕실로 복귀해 왕족 지위를 점차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미루어 볼 때 4남의 경우도 왕실 복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 장남(쭈타왓마히돈, Juthavachara Mahidol)은 1979년생이다. 현재 아들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세자는 마지막으로 2005년 셋째 부인(씨랏 쑤와디, Srirasmi Suwadee, 1971년생)과 사이에 1남 티빵견랏짜미쑤(Tipangkara Rasmichote) 을 얻었다. 결국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르면(남성만이

가능하도록 한), 승계순위는 왕세자→ 셋째 부인 아들인 티빵견랏싸미춧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부인과 사이에 낳은 4명의 아들들의 복권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주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1974년 이후 헌법을 적용하면 승계 가능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하게 된다. 근래 왕세자가 티빵견랏싸미춧 왕자의 생모인 씨랏 쑤와디와 이혼함으로써 왕자의 지위가 불안정 하게 되었다는 점도 유의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왕세자는 전직 타이 항공사 여승무원이며 2014년 왕세자 경호대장이 된 육군 중장 쑤티다 와치라롱건(Suthida Vajiralongkorn)과의 사이에 한 살 된 아들도 두고 있다. 이 아들은 아직까지 왕자의 타이틀은 없지만 앞으로 승계 가능성을 갖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³⁾

<그림 1> 왕실 가계도



3) 왕실 가족에 관한 내용은 <https://www.wikipedia.org>(검색일: 2015. 12. 06)에서 찾아서 정리했음.

IV. 개인적 · 정치적 쟁점

이 장에서는 왕위 계승의 개인적 쟁점과 정치적 쟁점을 3개 시기별-2000년대 이전, 2000년~2014년,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이전 왕위계승의 불안정성은 주로 왕세자의 개인적 자질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쟁점이 부각되었다는 의미다. 와치라롱껀 왕자는 1972년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1977년 첫 번째 부인 쏘싸왈리 끼띠야껀(Somsawali Kitiyakara, 1977-1991)과 결혼했다. 그는 범죄 관련한 사업으로 부를 쌓은 거부들과 정기적으로 어울려 씨야 오(เสี่ยโอบ, 중국인 부호)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런 왕세자에게 좌절해서 푸미폰 국왕은 1977년 씨린턴 공주에게 후계가능성을 갖는 직위를 수여해 왕위승계와 관련한 모호성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1924년 왕위계승법에서는 남성만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지만 1974년 헌법에서 여성에게도 왕위 계승의 기회를 부여 한 바에 따른 것이다.

1978년 왕세자는 쏘싸왈리와 사이에 딸 하나를 생산했으며 1979년에는 후일 둘째 부인이 되는 배우 출신 유와티다 폰쁘라쓰엣(Yuwathida Pholprasert, 1994-1996)와 사이에서 최초로 아들 하나를 얻은 이래 모두 4남 1녀를 두었다. 1977년 둘째 공주인 씨린턴 공주가 승계가 가능한 위치(สมเด็จพระเทพรัตนราชสุดา เจ้าฟ้ามหาจักรีสิรินธร รัฐสีมาคุณากรปิยชาติ สยามบรมราชกุมารี)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후계자를 정하는 데 절대권을 갖는 푸미폰 국왕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당시 왕세자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었고, 푸미

폰 공주의 첫째 딸 우본랏은 1972년부터 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실의 지위를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왕세자는 엘리트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자질시비를 받아 왔다. 우선 왕세자는 여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고관대작의 딸들을 왕실로 자주 초청해 그 부모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왕자의 관심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딸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고 알려진다(Marshall 2014: 137). 이런 왕세자에 대해서 1981년 씨리깃 왕비조차 “내 아들은 돈 주앙(Don Juan)의 기질이 다소 있다...만일 국민들이 내 아들의 행동을 용인하지 못한다면 그는 행동을 고치든지 왕실로부터 떠나든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할 정도였다(Kobkua 2004: 203).

왕세자에게 실망한 전 총리 크릿 빠라못(Kukrit Pramoj)은 1982년 *Asia Week*지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여왕을 갖게 될 때가 오면, 정성을 모아 한 명의 여왕을 갖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태국 군주들은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왔으며, 국민들은 더욱 적응력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했다(Kobkua 2004: 203). 당시 크릿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왕실 종친이었다.

왕세자는 기행을 일삼기도 했다. 1987년 9월 일본 국빈방문 중 일본 측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해서 조기 귀국해 버려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적도 있다(Marshall 2014: 141). 이 사건은 계속해서 1990년대 들어서 지도층을 경악시키게 만드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1996년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Ryutaro Hashimoto)총리가 태국과 정상회담 차 방콕 국제공항에 착륙해 타고 온 비행기가 레드카펫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 3대의 F-5 전투기가 20분동안 활주로를 가로막았던 사건이다. 그 중 한대에는 파일럿인 왕세자가 타고 있었는데 9년전 사건의 복수를 위해서였다(Marshall 2014: 142).

왕세자도 자신에 대한 지도층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

다. 이는 한 인터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87년 2월 왕세자는 승계에 관련한 인터뷰를 가졌다. ‘나는 내가 왕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그들이 나를 왕국에서 쫓아내든 군에서 쫓아내든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내 누이 동생 씨린턴이 나 대신에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들의 생각이다. 태국은 자유국가이며 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자유가 있다(Kobkua 2004: 204). 이처럼 거의 차기 왕권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왕실 종친인 쑤콤포판 버리팻(Sukhumband Paribatra)은 1988년 1월 *Far East Economic Review*지에 다음과 같이 푸미폰 국왕의 태국사회에서의 역할과 비교해 왕세자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입헌군주제가 국민의 마음 한 가운데 자리 잡고, 태국 정치와 경제발전엔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입헌군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큰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그의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바 같이 국민들과 주요 정치세력들로부터의 충성심을 이끌 능력이 왕세자에게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공개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또한 왕세자가 정치에서 아버지 같이 노련한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Marshall 2014:141).

푸미폰 국왕은 1992년 한 인터뷰에서 “짐은 (후계자의)성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Handley 1996: 441). 이 같은 예에서 보듯 1977년 씨린턴 공주가 왕위계승 가능성을 갖게 된 후 1980년대 내내 왕세자의 후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다. 1990년대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은 1996년에 발생했다. 푸미폰 국왕 즉위 50주년 행사준비가 바쁠 때 왕자는 두 번째 부인을 쫓아내고 4명의 아들까지도 추방해 버려 정통성 있는 남성 후계자를 남겨 놓지 않음으로써 그의 승계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2. 2000년~2014년

2000년대 이전 왕세자의 개인적인 자질이 승계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2000년대 들어선 후 그 위기는 탁싰 친나왓(Thaksin Shinawatra, 1949년 생)의 정치적 부상으로 발생했다. 탁싰 집권 후 후계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쟁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원래 총리에 오르기 전인 1990년대 탁싰은 씨리꼿 왕비와, 낭비벽이 심해 항상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와치라롱껀 황태자 두 사람에게 많은 기부를 했다고 알려진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씨리꼿 왕비 정치세력의 지지를 받았지만 푸미폰 국왕은 이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다. 2002년 초 *Far East Economic Review*지에는, 국왕은 탁싰이 왕실 일에 간섭하고, 와치라롱껀과 거래하는 것을 짜증냈다는 보도가 실렸다(*Far East Economic Review* 2002/01/10). 2001년 말에도 동 매체는 왕자와 탁싰간의 부적절한 금융거래를 보도해 태국정부로부터 왕실모독죄로 기소 위협을 받은 적도 있다(Handley 2006: 448).

잘 알려진 바대로 탁싰은 1998년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을 창당한 후 2001년 총선에서 압승해(하원 500석 중 248석 차지) 총리가 되었다. 태국 최초의 4년 총리 임기를 마친 탁싰은 2005년 선거에서도 압승했다(하원 500석 중 375석). 그때까지 태국 역사상 한 개의 정당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얻었던 경우는 없었다. 선거결과 과거 같이 극심한 다당제로 인한 정치불안은 크게 감소했으며 탁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탁싰의 압도적인 승리는 선거기간 중 그가 내걸었던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런 탁싰 정권이 2006년 쿠데타로 물러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이른바 군주제 네트워크와 갈등을 빚은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에는 1980년대 이래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군주제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군부·관계·재계 등 보수세력 동맹으로 형성되며, 그 정점에 있는 국왕이 이들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다.

2001년 선거를 통해서 탁싨은 의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후 군주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기반과 기존 정치권의 합의된 위계질서를 뿌리 채 뒤흔드는 치명적인 리더십(a toxic mode of leadership)을 발휘하게 되는 데 이를 가리켜 영국 리즈 대학(University of Leeds)의 맥카고(Duncan McCargo)교수는 군주제 네트워크에 대한 해체작업이라고 주장했다(McCargo 2005). 결국 군주제 네트워크와의 권력공유를 거부한 탁싨의 정치행태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탁싨은 집권 후 전통적 권력기구인 군주제 네트워크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관료체제와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려고 했다. 전통적으로 민간관료 체제와 군은 국왕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특히 1980년대 국왕의 충성스런 신하인 뽀렘 띠술라논(Prem Tinsulanonda, 1920년 생)총리 집권 이후 이 두 개 영역은 사실상의 불가침의 영역과 같이 되어 있었다. 국왕의 복심 또는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 왕실 자문기구(Privy Council) 의장 뽀렘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었다. 그리고 뽀렘은 군주제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뽀렘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상층부를 태국사람들은 암맛(ammatt)세력이라고도 부른다. 암맛이란 원래 왕의 고위 신하들을 일컫는 데 왕실과 밀착된 정치세력의 지도층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탁싨은 태국사회에서 불가침의 영역에 속해 있는 국왕에 대한 존경심을 의심받을 언행도 자주 표출해 수 차례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심도 받았다. 군주제 네트워크의 이해에 반하는 일련의 사

건들로 인해 조성된 정치적 위기 속에서 반 탁썬 세력들은 국왕을 정치에 끌어 들이려 다양하게 시도했다. 2005년 말 탁썬의 권위주의 통치행태와 비리혐의에 대한 반발로 친왕정파를 자처하는 쏬티 림 텡꾼(Sondhi Limtongkul)이 이끄는 민주주의 국민연맹(PAD: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주도의 탁썬 정부퇴진운동이 전개 되었으니 이른바 옐로셔츠 정치세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태국정치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색깔의 정치세력은 레드셔츠와 옐로셔츠이다. 전자는 2006년 쿠데타로 물러난 탁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인데 이들은, 도시빈민과 동북부·북부 농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후자는 왕실·군부·관계·재계와 중산층을 아우르는 보수동맹 네트워크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이 세력은 차기 왕권 후계자로 씨린턴 공주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 두 세력은 2006년 쿠데타 후 한치의 타협 없이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벌였다. 탁썬은 이 과정에서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왕실의 절대 비토세력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한편 2005년 4월 왕세자가 셋째 부인 씨랏과의 사이에 아들을 생산하면서 그의 지위는 매우 강력해 졌다. 그때까지 지배계층은 때가 되면 왕세자를 대신할 자신들이 수용 가능한 자를 왕으로 받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때부터 이런 낙관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선호하는 씨린턴 공주는 미혼이고 자식이 없었다. 반 왕세자 세력의 입장에서는 탁썬의 대중적 인기는 왕자의 비인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이 탁썬과 왕세자가 연합하면 태국을 향후 수십년 동안이라도 통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믿으면서 구 기득권층은 (정치·사회적) 우위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하게 되었다(Marshall 2014: 159). 그래서 그 투쟁방식과 정치적 주장도 극단적이 되어 갔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왕세자=친 탁썬,

씨린턴 공주 = 반 탁썬 구도가 고착되는 것이었다.

이런 왕세자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사건은 탁썬이 축출되는 2006년 쿠데타였다. 그리고 이어 2007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왕세자의 애견 생일 축하 파티에 왕세자비가 거의 전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식사도 하고 바닥에도 엎드려 있는 동영상이 호주 티브이에서 방영되고 인터넷에 떠돌게 된 것이다. 이 동영상은 추밀원 의장 뽀렘 측에서 왕세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유출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했다(Asiasentinel 2014/12/12).

2008년경에는 왕세자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씨리깃 왕비가 암맛 세력의 설득으로 왕세자를 왕위계승에서 제외시키고 왕세자의 아들인 티빵껄랏싸미춧을 대신해서 섭정이 되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2012년 7월 왕비는 뇌졸중으로 오른 편 마비상태가 와 그녀가 섭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Marshall 2014: 199).

2010년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기밀외교문서를 유출시킨 케이블 게이트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태국주재 미국대사인 에릭 존(Eric John)을 만난 뽀렘을 포함한 3명의 원로 추밀원 위원들(Prem Tinsulanonda, Anad Panyarachun, Siddhi Savetsila)은 왕세자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푸미폰 국왕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후계자를 씨린턴 공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뉴앙스의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았다. 이 중 한 명인 아난 뽀야라춘은 왕세자가 법에 따라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에 간여하지 말고, 혼란스런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The Guardian 2010/12/15).

2011년 6월 24일자 *The Times*에는 위 외교문서의 내용을 인용해 푸미폰 국왕은 파킨스 병에 걸리고 황태자는 에이즈 감염자라고 보

도했다. 또 왕세자는 지난 2년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의 뮌헨에서 20킬로 떨어진 의료 스파에서 그의 내연녀, 애견 푸푸와 거주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혈관계통의 병(에이즈 설, C형 간염, 혈액암 등)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The Times* 2011/06/2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서는 황태자는 “지정된 후계자이며 승계는 확립된 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불확실성’의 이유와 추측을 불러일으킬 타당한 근거는 없다”라고 주장했다(Marshall 2014: 109).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한편 2006년 쿠데타 후에도 왕세자는 탁썬 세력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레드셔츠 진압과정에서 아피셋 총리가 선호하는 경찰총장 임명을 반대해 (이전 탁썬의 측근세력이었던)네 윈(Newin Chidchob)과와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그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설득했다(Marshall 2014, 186). 2013년 11월 잉락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옐로셔츠 세력의 대규모 시위 때 자신의 휘하의 “끄롬 타한 마햏렉 랏차완롭 락싸 프라웅”(보병연대)을 잉락 친나왓 총리를 경호하기 위해서 파견하기도 했다(Pavin 2015/07/03). 결과적으로 탁썬이 집권한 이래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 왕세자는 대체로 친 탁썬 편에 섰던 곳은 분명해 보인다.

왕세자가 눈에 띄게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쿠데타 이후이다. 이러한 변화는 왕세자=친 탁썬, 씨린턴 공주=반 탁썬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3.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2014년 5월 쿠데타 당시에 황태자는 영국 남부 햄프셔(Hampshire)

주에 있는 틸니 홀(Tylney Hall) 호텔에서 수행원 30여명과 함께 10일 이상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려진 바 없지만 2014년 8월 8일 군사정권의 입법회의 개소식에 참가했다(Dubuis 2014/05/23). 쿠데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왕세자는 2015년 3월에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프라웃 찬오차(Prayut Chan-o-cha) 총리의 61회 생일에 화환을 보냈다. 2014년 12월 왕세자의 이혼으로 이어진 수뢰사건에서는 탁썬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경찰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다(Finch 2015: 108).

근래 부쩍 왕세자의 차기 왕위계승 가능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떠오르는 것은 군부 지지설이다. 1980년대 이래 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은 왕실자문기구인 추밀원 의장 뿌렘이다. 그는 암맛 세력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반 왕세자 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뿌렘의 영향력은 2006년 쿠데타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뿌렘은 이미 나이가 96세(1920년생)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푸미폰 국왕의 대리인 역할을 해 온 그는 암맛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탁썬은 2006년과 2014년 쿠데타 배후에는 추밀원이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6년 쿠데타 후 군부 실세는 “동부 호랑이 파벌”로 알려진다(Pavin 2015/01/21; Bangkok Pundit 2014/09/09). 이 파벌은 태국군 1군 산하 2사단 21연대에서 장교생활을 한 군인들을 일컫는다. 21연대는 한국전을 통해서 그 용맹성으로 “파약 너이”(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씨리꼿 왕비로부터는 “왕비의 호랑이 부대”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다. 왕비는 이 부대의 명예 연대장으로 이 부대 출신 장교들을 각별히 챙겼다. 알려진 바대로 왕비는 왕세자를 아끼고 차기 국왕이 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챙겼던 인물이다. 왕비의

각별한 배려 속에서 군 생활을 한 “동부 호랑이 파벌”군인들은 왕세자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현재 군사정권 실세들은 모두 “동부 호랑이 파벌”군 출신 들이다. 이 파벌의 대부는 부총리인 빠라윗 윙쑤완(Prawit Wongsuwan)이다. 2014년 쿠데타 후 국방부 장관과 부총리, 국가평화질서유지위원회 부의장과 자문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입법·행정·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혁명위원회이다. 한마디로 그는 현 정권의 실세 중 실세인 셈이다. 동 위원회 자문위원회 부의장과 내무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아누퐁 파오찐다(Anupong Paochinda)는 레드셔츠를 유행진압한 2010년 5월 사태 진압의 책임자이다. 당시 국방부장관이 빠라윗이고, 아누퐁이 육군 사령관이며, 그의 직계 수하가 빠라윗 총리였다. 이들 3인 실세 모두 21연대에서 장교생활을 한 인물들로 정치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동부 호랑이 파벌”은 현재 군 내 가장 강력한 정치파벌로 볼 수 있다. 이 파벌은 그들만의 특유의 단결심이나 소속감을 갖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파벌에 속해 있는 떠오르는 실세 빠라윗 총리와 지는 실세 빠렘 사이에는 실제로 분열까지는 아니지만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작년에는 군 인사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이견을 보였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밝혀진 바도 있다(Bangkok Pundit 2014/09/09).

왕세자가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근거로 군부와의 합작 행사가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은 “뺨 프어 매”(Bike for Mom) 행사인데 이른바 왕세자 띄우기 이벤트성 행사로 볼 수 있다.

2015년 8월 16일 황태자는 씨리깃 왕비 83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전거 대회 “뺨 프어 매” 행사를 주도했다. 이 행사는 자전거 타기 행사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으며 빠라윗 총리를 비롯한 내각, 군부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가했다. 특히 노구의 뿌렘도 왕세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도열해 있었다(Asiasentinel 2015/11/11). 그래서 후자는 이 행사는 왕세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군부 내에서 누가 다음 번 국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Thomas Fuller 2015). 뿐만 아니라 푸미폰 국왕이 과거 농촌개발계획을 통해서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 같이 왕세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중산층의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Tan Hui Yee 2015). 이어 2015년 12월 5일 푸미폰 국왕 88회 생일을 맞이해서는 “빠 프 어 펴”(Bike for Dad) 행사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렸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기획성 행사들이 왕세자의 효심 깊은 이미지를 창출해 차기 왕위 계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할 것 같다.

얼마 전 왕세자가 우타얀 랏차팍(Rajabhakti Park)공원 개소식에 국왕을 대신해서 참석한 것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공원은 육군 부사관학교 구내에 건설됐다. 육군이 주도한 공사에 왕세자는 건설위원회 고문을 맡았으며 그의 첫째 딸은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타얀 랏차팍이라는 이름은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심으로 세워진 공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공원에는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국왕 7명의 조각상이 있다. 람캄행, 나레쑤언, 나라이, 탁썬, 라마 1세, 라마 4세, 라마 5세 들인데 이들은 모두 태국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왕들이다. 육군이 주도해 국왕들의 조각상을 설치한 공원 설립에 왕세자가 고문의 직책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왕세자와 군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왕권 계승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https://en.wikipedia.org/wiki/Rajabhakti_Park).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권하에서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하

는 것도 차기 왕위계승 관련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사회 기강잡기를 통해 왕세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2006년 쿠데타 발생 이전 한 해 평균 10건 미만의 왕실모독죄 사건은 2010년 한 해만 400건이었다. 2014년 쿠데타 후 53건의 왕실모독죄 위반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 40건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군사법정에서는 민간법정보다도 훨씬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6건의 왕실모독죄 혐의로 한 사람에게 무려 60년의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태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왕실모독죄 위반 형이었다(https://en.wikipedia.org/wiki/L%C3%A8se_majest%C3%A9_in_Thailand).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규명 전에 급히 화장되는 사건도 발생했다(*The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2015/12/01).

군부 지지에 힘입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왕세자도 차기 왕권에 오르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례는 2014년 12월 왕세자의 이혼사건이다. 이혼 직전 씨랏 쑤와디 왕세자빈의 형제들과 고위 경찰 간부 출신의 삼촌 등이 왕실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부정부패와 왕실모독죄 혐의로 모두 투옥되었으며 이어 왕세자는 씨랏과 이혼을 했다. 세 번째 이혼이다. 사건의 진상을 놓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 거론되었지만 왕세자빈 씨랏의 미천한 출신 배경이 왕위 계승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세자 스스로 수신제가 차원에서 씨랏을 쫓아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Asiasentinel* 2014/12/12).

V. 요약과 전망

이 글에서 푸미폰 국왕 이후 후계구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살펴 본 중요 쟁점은 세 가지-법적, 개인적, 정치적 쟁점-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적 쟁점에 따르면 차기 왕권은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 남성 후계자에게 계승되지만 1974년 헌법에서 공주도 계승 가능하게 규정함으로써 왕세자 외에 씨린턴 공주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24년 왕위계승법에서는 승계라인을 정해 두었다. 이에 따르면 왕세자의 법적 장남인 티빵껀랏짜미춧 왕자(2005년 생)가 씨린턴 공주에 앞서서 우선권을 갖는다. 이외에도 1974년 헌법에 따라 공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왕위계승 경우의 수는 훨씬 복잡해 질 것이다. 푸미폰 국왕은 씨리깃 왕비와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으며, 장남인 왕세자는 공식적으로 3번 결혼 해 3명의 부인으로부터 5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얻었다. 이들 자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법적으로 왕실 구성원 자격을 잃은 인물도 있고 복권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1924년 왕실법에서는 승계라인을 정해 두었으나 후계자를 정하는 데 절대권을 갖는 것은 국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쨌든 왕세자가 후계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씨린턴 공주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1972년 왕세자에 오른 후 오늘날까지 왕세자의 자질은 후계문제의 중요한 개인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쟁점은 사실 절대적 변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푸미폰 국왕과 달리 그의 후계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입헌군주제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왕세자의 자질을 후계자의 자격으로 과도하게 거론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푸미폰 국왕과 같은 입헌군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왕실 종친인 쭈콤포판 버리팻의 1988년 1월 *Far East Economic Review*지 언급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으로 차기 국왕이 푸미폰 국왕과 같은 카리스마를 갖지 못하는 경우 입헌군주제와 정치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결점 많은 왕세자의 등극이 장기적으로 태국의 순수 입헌군주제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치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탁쨌이 집권하는 2000년대 초 이래 후계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쟁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4년 쿠데타 이전까지 왕세자 = 친 탁쨌, 씨린턴 공주 = 반탁쨌 구도가 고착되었으나, 이후에 이런 구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왕세자가 차기 왕권을 계승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쿠데타 후 군부 지지설이 그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정치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왕세자의 왕위계승은 뻘뻘을 위시한 암맛 극우세력들의 태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왕세자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왕세자에 대한 시각은 2010년 위키리크스가 미국의 기밀외교문서를 유출시킨 케이블 게이트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암맛 극우세력들과 군사정권 실세 그룹이 차기 왕권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다고 해도 반 탁쨌이라는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강화해 탁쨌 전 총리 세력의 재집권을 무력화시키거나 봉쇄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두 세력은 타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접점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접점 상에서 암맛 극우세력과 군부, 왕세자 사이

에 적절한 정치적 화해와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장해 온 왕세자 = 탁썬, 씨린턴 공주 = 반탁썬이라는 고착된 공식을 깨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의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앞으로 왕세자, 군부, 탁썬 세력 사이 삼각관계의 향배가 주목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왕세자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이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후계자를 정하는 데는 주요 정치세력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왕위계승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씨린턴 공주 추대설은 아직 유력한 대안으로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 그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추밀원과 육군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알려진다. 그는 1980년 태국 육군사관학교 역사학과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래 1987년부터는 학과장을 지냈으며 1992년에는 정교수가 되었다. 육사 교수로 재직 중 수많은 군 장교를 길러내 큰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 군사 정권 실세 그룹이 왕세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전 군이 일사불란하게 따를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군부는 둘째 공주 지지파뿐 아니라 탁썬 지지파로 분열되어 있는 데 때가 되면 수면 위로 나타나서 정치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씨린턴 공주 추대설은 왕세자가 왕위계승을 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 씨린턴 공주 추대가 쉽지 않을 것이다. 1924년 왕위계승법을 고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에 앞서 병약해진 푸미폰 국왕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4년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지금

도 수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알려진 병명만해도 잦은 폐렴 증상, 파킨슨병, 우울증, 장 기능장애, 왼쪽 뇌 경막하출혈(뇌출혈), 요추관협착증, 심장병 등이다(*The Times* 2011/06/24). 대부분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90세에 가까운 고령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푸미폰 국왕이 무리하지 않고 왕세자를 후계자로 삼으려 한다는 징조는 여러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 그는 왕세자를 자신을 대신한 행사에 자주 참석시키고 있다. 2014년 4월 4일에는 “끄롬 타한 마하렉 랏차완롭 락싸 프라웅”(1978년 이래 왕자 휘하에 둔 보병 연대)의 권한을 확대시켰다. 이 부대는 왕자가 선택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일례로 2014년 초 잉락 총리를 경호하기 위해서 왕세자가 이 부대를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4년 11월에 왕세자는 국방에 관한 최고위 정책결정 기구인 국방위원회 결정 비토권을 푸미폰 국왕을 대신해서 갖게 되었다(*The Economist* 2014/05/24). 국방위원회에서는 장성급 심사를 하게 되는 데 총리, 국방부장관, 육·해·공 3군 사령관과 최고사령관 등이 멤버로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왕세자나 씨린턴 공주 외의 대안은 없나? 일찍부터 한 가지 안으로 등장한 것은 두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을 고려해 왕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고 섭정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경우 섭정으로 거론된 인물은 씨리깃 왕비와 씨린턴 공주였지만 씨리깃 왕비는 2012년 이후 뇌졸중을 앓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1974년 헌법을 적용해 푸미폰 국왕 1남 3녀의 자식들 모두에게 까지 범위를 확대해 본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후계자 경우의 수는 훨씬 많아 질 것이다.

후기

공교롭게도 이 글을 마무리할 때쯤 푸미폰 국왕이 서거했다. 빠라우 총리는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차기 국왕으로 즉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왕세자는 즉위를 미루고 있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글을 읽고 앞으로의 현실을 지켜보는 일은 색다른 학문적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2016년 10월 9일 왕실사무국은 혈액투석 및 과도하게 분비되는 척수액을 빼내기 위한 삼관 교체 후 푸미폰 국왕의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밝혀 우려를 낳았다(*Bangkok Post* 2016/10/09). 왕실에서 나오는 국왕 건강 관련 발표문은 언제나 국왕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날 발표문은 푸미폰 국왕의 건강이 “호전됐다”는 말을 하지 않은 최초의 근황 발표문으로서, 도리어 “불안정하다”고 적고 있었다. 더욱이 이 발표문은, 의사들이 국왕에게 건강을 위해 집무를 중단하고 왕실의 의무들도 잠시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것은 국왕의 사망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듯싶었다.

드디어 왕실사무국은 10월 13일 오후 6시 45분 푸미폰 국왕이 금일 오후 3시 52분에 서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30일간 공공기관에 반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축제를 금지시켰으며 애도기간인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도록 했다(*Bangkok Post* 2016/10/13).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왕 서거 후 빠라우 총리는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 1972년 왕세자에 책봉된 푸미폰의 장남인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차기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지만,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애도기간 중에는 왕위에 오르는 것을 유보할 것이며(*Bangkok Post* 2016/10/13), 당분간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 의장 뽀렘을 임시 섭정으로 임명한다고 발표 했

다(*Bangkok Post* 2016/10/14). 즉위 시기는 애도기간인 1년 후 2017년 10월 중순쯤 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2007년 헌법에는(2016년 헌법개정안은 아직 국왕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왕이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 후계자를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는 후계자를 국회로 초청해 국왕으로 추대하도록 하고 있다. 차기 국왕은 국회에서 즉위 선언을 하게 되어 있다. 현재는 국회에 상원과 하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입법회의가 왕세자를 차기 국왕으로 추대하는 기능을 대신 할 예정이다.

이어 왕위 계승시기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자, 18일 빠랏 총리는 “15일간의 애도가 끝나면 적절한 시기에 왕위 승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국왕이 헌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Bangkok Post* 2016/10/19). 빠랏 총리가 언급한 ‘15일간의 애도기간’이란 국왕 서거 후 15일간에 걸친 왕실 종교의식 기간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도 같은 생각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왕세자가 푸미폰 국왕 서거 후 바로 즉위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정치적 불안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일각에서 왕세자가 즉위를 미루며 기다리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푸미폰 국왕은 라마 8세 서거 직후인 1946년 6월 9일에 즉위선언을 했다. 하지만 대관식은 거의 4년이 지난 1950년 5월 5일에 치렀다(https://en.wikipedia.org/wiki/Bhumibol_Adulyadej). 이처럼 대관식은 늦추더라도 즉위 선언은 국회에서 즉시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당연할지 모른다. 더구나 지금까지 왕세자의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왕세자는 국민들에게 “왕위 계승에 대해서 혼란해 하지 말 것”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The Nation* 2016/10/17).

쁘라웃 총리가 “새로운 국왕이 헌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왕세자가 헌법 개정안의 서명을 섭정인 뽀렘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 일을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한 것이긴 하나 차기 국왕이 될 왕세자가 탁썬과 지지세력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서명하는 행위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 밝힌 향후 일정에 따르면, 2016년 11월 9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국왕에게 제출하고, 국왕은 90일간 검토 후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게 된다.

최근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태국 군 소식통의 이름을 빌려 왕세자가 12월 1일 즉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http://www.reuters.com/article/us-thailand-king-idUSKBN12V0S5/2016/10/30>). 태국 언론은 3주가 지난 후 국가입법회의가 12월 1~2일 ‘특별안건’ 처리를 이유로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다시 이를 앞당겨 11월 29일에 특별회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The Nation* 2016/11/21; *The Nation* 2016/11/26). 하지만 회의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홍구. 2006. “태국의 탁썬 정부와 군부 쿠데타.” 『동남아연구』 16(2): 49-88.
- _____. 2009.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 요인분석.” 『동남아연구』 19(2): 53-108.
- 송인서. 1988. “Chuang Bunnag 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1: 129-143.

- _____. 1994. “타이의 황태자제 성립에 대한 일 고찰.” 『한국태국학 회논총』 5: 35-48.
- Asiasentinel. 2014. “Succession Tug-of-War Over Ousted Thai Princess and Son.” *Asiasentinel* December 12.
- _____. 2015. “Opponents of Thai Crown Prince Throw in the Royal Towel.” *Asiasentinel* November 11.
- Askew, Marc (ed.). 2010. *Legitimacy Crisis in Thailand*. Chiang Mai: Silkworm Books.
- Bangkok Pundit. 2014. “In Post-Coup Thailand, What is Happening with Prem? *Asian Correspondent* September 09.
- Dubuis, Anna. 2014. “Taking Refuge in 5-star Hampshire Hotel: Thailand’s Crown Prince and His Retinue of 30. *The Telegraph* May 23.
- Finch, Steve. 2015. “Thailand: Purging the Shinawatrass and Their Allies after the Coup.” 『루트아시아』. 서울: 도서출판 동아시아.
- Handley, Paul M. 2006. *The King Never Smiles: A Biography of Thailand’s Bhumibol Adulyadej*.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ewison, Kevin. 1996. “Political Oppositions and Regime Change in Thailand.” Garry Rodan (ed.), *Political Oppositions in Industrialising Asia*. London: Routledge.
- _____. 1997. “The Monarchy and Democratization.” Kevin Hewison (ed.),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London: Routledge.
- Kershaw, Roger. 2001. *Monarchy in South-East Asia: The Faces of Tradition in Transition*. London: Routledge.

- Kobkua Suwannathat-Pian. 2002. "The Monarchy and Constitutional Change Since 1972." Duncan McCargo (ed.), *Reforming Thai Politics*. Copenhagen: NIAS Publishing.
- _____. 2004. *Kings, Country and Constitutions: Thailand's Political Development 1932-200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 Mark Tran. 2010. "WikiLeaks Cables: Thai Leaders Doubt Suitability of Prince to Become King." *The Guardian* December 15.
- Marshall, Andrew MacGregor. 2014. *A Kingdom in Crisis: Thailand's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Zed Books Ltd.
- McCargo, Duncan. 2005. "Network Monarch and Legitimacy Crises in Thailand." *The Pacific Review* 18(4): 499-519.
- Pavin, Chachavalpongpun. 2015a. "Royal Succession, Military Rule Come Together in Thailand." *Nikkei Asian Review* January 21.
- _____. 2015b. "Thai Monarchy on Verge of Dramatic Change." *The Japan Times* July 03.
- Phasuk, Phongpaichit and Baker, Chris. 2009. *Thaksin*. Chiang Mai: Silkworm Books.
- Puangthong R. Pawakapan. 2015. "The Foreign Press' Changing Perceptions of Thailand's Monarchy." *Series: Trends in Southeast Asia*. The ISEAS-Yousof Ishak Institute.
- Smithies, Michael. 1995. *Descriptions of Old Siam*.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Solomon, Robert L. 1970. *Aspects of State, Kingship and Succession in Southeast Asia*.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 Streckfuss, David. 2013. "The Future of the Monarchy in Thailand."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 13.
- Tan Hui Yee. 2015. "Thai Crown Prince Leads 'Bike for Mom' Cycling Event." *The Straits Times* August 17.
- Tanatpong Kongsai. 2015. "Bike for Dad' to Celebrate King's 88th Birthday." *The Nation* September 29.
- Terwiel, B.J. 2011. *Thailand's Political History: From the 13th Century to Recent Times*. Bangkok: River Books.
- The Economist. 2014. "Thailand's Coup: The Path to the Throne." *The Economist* May 24.
- Thomas, Fuller. 2015. "With King in Declining Health, Future of Monarchy in Thailand Is Uncertain."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0.
- Wood, W.A.R. 1926. *A History of Siam*. London: T. Fisher Unwin.
- Wyatt, David K. 2003. *Thailand: A Short History* (2nd ed.). Chiang Mai: Silkworm Books.

자료

- กฎหมายโบราณว่าด้วยการสืบราชสันตติวงศ์ พระ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๔๖๗ (1924년 왕위계승법).
คนัย ไชยโยธา.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ไทย: ชุทธานัจกรอยุธยา(아웃타야 왕국의 역사). กรุงเทพฯ: โอ
เดียนสโตร์. พ.ศ. ๒๕๔๖.
-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๑๗ (1974년 헌법).
-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๐ (2007년 헌법).
- 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พุทธศักราช ๒๕๕๕ (2016년 헌법개정안).

인터넷 자료

- <https://www.wikipedia.org> (검색일: 2015.11.30)
- https://en.wikipedia.org/wiki/Bhumibol_Adulyadej (검색일: 2015.12.06)
- https://en.wikipedia.org/wiki/L%C3%A8se_majest%C3%A9_in_Thailand and (검색일: 2015.12.06)
- https://en.wikipedia.org/wiki/Rajabhakti_Park (검색일: 2015.12.06)
- <http://www.reuters.com/article/us-thailand-king-idUSKBN12V0S5> (검색일: 2016.10.30)
- Bangkok Post. 2016/10/09; 2016/10/13; 2016/10/14; 2016/10/19.
<http://www.bangkokpost.com/>
- Marshall, Andrew MacGregor. 2012. "A Brief Guide to Thailand's Royal Succession." [http://www.zenjournalist.com/2012/10/a-brief-guide-to-thailand's-royal-succession\(2012/10/24\)](http://www.zenjournalist.com/2012/10/a-brief-guide-to-thailand's-royal-succession(2012/10/24)) (검색일: 2015.07.30).
- The Nation. 2016/ 10/17; 2016/11/21; 2016/11/26.
<https://www.thenation.com/>
- The Times. 2011/06/24. <http://www.thetimes.co.uk/>

(2016.10.27. 투고, 2016.11.15. 심사, 2016.11.19. 게재확정)

<국문초록>

태국의 왕위계승 연구: 쟁점과 전망

김 홍 구

이 글의 목적은 태국 왕위 계승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왕권의 향방을 전망해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련 논의들을 각각 법적, 개인적, 정치적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적 쟁점은 1924년 왕위계승법, 1974년 헌법, 2007년 헌법, 2016년 헌법 등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승계순위를 파악한다. 개인적 쟁점은 왕세자의 개인적 자질이 왕위계승에 적합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정치적 쟁점에서는 왕세자=친 탁씬 세력, 씨린턴 공주=반 탁씬 세력이라는 정치구도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이에 따른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왕세자는 왕위 계승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서 1972년에 이미 책봉식을 가졌기 때문에 승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쟁점은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절대적 변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푸미폰 국왕과 달리 그의 후계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입헌군주제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치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탁썬이 집권하는 2000년대 초 이래 후계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쟁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4년 쿠데타 이전까지 왕세자= 친 탁썬, 씨린턴 공주= 반탁썬 구도가 고착되었으나, 이후에 이런 구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왕세자가 차기 왕권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쿠데타 후 군부 지지설이 그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하지만 왕세자가 왕위계승을 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정치적 쟁점은 이후 정치불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주제어: 푸미폰 국왕, 와치라롱껀 왕세자, 1924년 왕위계승법, 1974년 헌법, 탁썬, 씨린턴, 군부(동부 호랑이 파벌)

<Abstract>

A Study on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in Thailand

KIM Hong K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roversial issues regarding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in Thailand and have a lookout of who will succeed to the throne. The controversial issues are examined with them divided into legal, individual and political one.

As for the legal issue, reviewed will be 1924 Palace Law of Succession in Thailand, 1974 constitution, 2007 constitution and 2016 constitution, and the legally possible line of the succession will be seen. The individual issue is focused on whether the Crown Prince is qualified for the succession. As for the political issue, it will be examined whether the Crown Prince is supported by pro- Thaksin political powers and anti-Thaksin political powers support the Princess Sirindhorn.

The tentativ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rown Prince already has been proclaimed heir to the throne in 1972 according to 1924 Palace Law of Succession, which can be seen as the mother law of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So if he succeeds

to the throne, it is very legal.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is not crucial enough to influence on the succession even though the crown prince has some weakness if he is a genuine constitutional monarch without intervening in the politics as King Bhumibol Adulyadej does.

The most important issue to influence on the succession can be considered as the political one. Since Thaksin came to power in early 2001, the succession has turned into a serious political issue. Before the 2014 coup, it is widely known that Crown Prince Vajiralongkorn is for Thaksin. But after the coup, things that cause this format to change are occurring. The military, which led the coup, were against Thaksin and is supporting the Crown Prince. The relations among the Crown Prince, Thaksin and the military are like a tangled web. So even if the Crown Prince more likely succeeds to the throne, the political issue will be the biggest factor that could subsequently cause a serious political instability.

Key Words: Bhumibol Adulyadej, Crown Prince Vajiralongkorn, Thai 1924 Palace Law of Succession, Thai 1974 Constitution, Thaksin Shinawatra, Princess Sirindhorn, Thai Army's Eastern Tigers (the Eastern Tigers)